

# 中原地區에 대한 새로운注目

黃壽永

一

오늘 이곳에서 論議하는 中原地區란 오늘의 忠北 忠州市와 그와 隣接한 中原郡 一圓 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慶北의 北部地方을 넣어서 「中原文化圈」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發說을 곧 따르지는 못하였다. 이곳은 우리나라 內陸에 있어서 國土의 南北中央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 忠州市 郊外 漢江邊에 屹立하는 可金面 塔坪里寺址의 七層石塔을 옛부터 「中央塔」②이라 傳稱하여 온 까닭이기도 하다. 水路로는 이 地區를 漢江이 貫通하고 있어 船便은 上流에서 깊숙히 江原道 寧越에 이르고 下流에서는 京畿道와 서울로 통하고 있다. 한편 陸路에 있어서는 嶺南北을 통하는 上古以來의 兩大 交通路로서 鳥嶺(關慶) 街道와 直通되고 다시 竹嶺街道(丹陽—淸風—堤川—原州)에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三國에서 비롯하여 歷代를 통하여 이 中原地區는 水利와 陸運의 要衝에 위치하여왔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것은 「大東地志」에서 이곳 形勝을 말하여 「南北之衝 水陸之會」라고 기록한 까닭이다.

일찍이 百濟의 領土가 되었고 이어서 高句麗가 南下하여 이곳에 國原城③을 두고 嶺南北의 넓은 땅을 차지하였으며, 곧으로 眞興王의 北進에 따라 이 要衝은 新羅가 占有한 바 되었다. 그러므로 新羅의 五小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곳에 國原小京④이 同王에 의하여 設置된 까닭이라 하겠다. 新羅는 이때 漢江以南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마침내는 그 下流地域을 百濟로부터 빼앗아 漢江 全流域을 차지하니 신라가 장차 韓半島의 統一을 이루는 基盤이 이에 구축되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하여 中原의 땅 忠州는 漢江 上流地域의 最大 重鎮으로서 古代史에서 큰 比重을 지니게 되었다.

一一

이같은 中原地區는 近年에 이르기까지 空白地帶로 남아 있었고 따라서 學的活動에서도 綜合的인 企劃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注目은 주로 海방후 一九六〇年代에 들어서 비로소 활발하여졌는 바 그것은 먼저 주로 遺物과 遺蹟에 대한 地表調査를 통해서였다. 다만 上記한 中央塔을 비롯하여 이 地區에 위치하는 古代寺址에서 전하던 羅麗의 塔碑 등 石造物이 이보다 앞서서 搬出되거나 또는 解體修理를 통하여 처음 주목된 바 있었다. 前例로서는 淨土寺弘法大師實相塔(서울 景福宮)을 들 수 있으며 後例로서는 中央塔을 들 수가 있겠다. 이곳 中原地區에서 일찍부터 注目된 곳은 上記한 中央塔이 위치하고 있는 可金面 一帶⑤라 하겠는데 이곳 龍田里에서는 수년전 鄭永鎬교수에 의하여 丹陽 赤城碑에 이어서 高句麗碑가 발견되어 學界를 놀라게 한 바 있었다. 사실 이 高句麗碑⑥야말로 海방후 學界의 注目을 이곳에 總集中시킨 큰 成果였다. 그리하여 이 可金面이야말로 中原地區의 옛 中心으로서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아가 이곳이 고구려의 國原城 또는 신라 小京의 要地로서의 推定이 비롯함에 이르렀다. 이같은 새로운 주목은 그사이 주로 鄭永鎬교수의 이 地區調査와 鄉土의

同好會의 활동에 따르는 것인 바 이같은 새로운 推定은 앞으로 이 地區 調査의 하나의 核心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곳 鳳凰里 韓岾산에서는 高句麗碑에 앞서서 半跏思惟像을 主尊으로 삼은 磨崖群像⑦이 주목되었는바 原位置를 지키는 이들 彫像群의 信仰內實과 그 造成與件은 앞으로 그 相反된 年代推定과 더불어 더욱 究明되어야 하겠다. 古文獻이 거의 없는 우리의 實情에서 이같은 稀貴한 古代의 造形은 비단 그 專門領域에서의 重要對象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보다 큰 史實에 引導하여주는 하나의 道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可金面과 隣接된 老隱面에서 日政初에 收拾된 建興五年銘金銅三尊佛⑧에 대한 새로운 考察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겠다. 解放後 三十年에 달하는 이 可金面에 대한 微弱한 우리의 주목이 마침내 塔像과 三國碑의 發見이란 큰 成果를 이곳 可金面에서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마치 全北 益山⑨ 金馬面·王宮面(金馬渚·枳慕窰)에서의 古代石塔 各一基에 대한 우리의 오랜 注目과 現地에 대한 親熟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三國 最大의 寺蹟과 百濟國都로서의 새로운 解明의 期待를 갖게된 境遇와 對比할 만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中原地區의 調査에서 이 可金面一帶의 遺物과 遺蹟의 集中事實을 계속 주목하고 앞으로의 論議 또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 三

다음은 漢江沿岸에 위치하는 또는 古代交通路와 관련된 內陸의 考古學的 遺蹟·城址·寺址 등의 조사가 古代史와 佛敎文化의 研究에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漢江은 軍事·産業·文化에 있어서 우리 古代史의 큰 動脈을 이룬 사실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三國佛敎의 南下도 사실인즉 이 漢江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近年 그 沿岸의 三國時代寺址에서 收拾된 古代金銅佛의 數例(특히 三陽洞·楊平·寧越)에서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우리 古代史에서 漢江은 洛東江 그리



寧越郡 北面 文谷里出土 金銅菩薩立像

고錦江과 함께 政治·文化·宗教의 中心을 形成하고 또 그 流通路를 이루어 온 까닭이다.

해방전후 우리의 古代研究는 歷代의 國都만이 그 中心이 되어왔다. 그 까닭은 그곳 地表와 地下에 古代의 遺物·遺蹟이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視野를 더욱 넓혀 三國以來의 國都中心에서 벗어나 地方中心으로, 예컨대 新라의 小京과 九州의 治所 등을 포함하여야겠다. 이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中原地區를 擇하여 이같은 첫 모임을 갖게 된 것은 그 뜻이 깊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이 地區에는 현재 대규모의 土木工事が 進行되고 있어 廣範한 水沒地域이 豫定되고 있는 時點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 四

오늘 忠州市가 주최하고 韓國美術史學會가 주관하는 이 學會에서 中原地區의 專門別 考察이 發表되는 것은 기왕의 知見을 綜合하는 동시에 今後 우리의 새로운 研究의 指針이 되기를 바라는 곳에 그 뜻이 있다. 이 地區에 대한 우리의 注目이 아직도 日淺하고 現地에 대한 親熟度가 낮은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研究를 위한 오늘과 같은 모임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數年前 忠北道가 道誌와 함께 文化財誌 寺誌 등 三冊과 忠北大와 함께 漢江流域의 遺蹟分布圖를 애써 刊行한 일이나 近年 忠州 甓瓦 瓦片에 따라 各大學이 참여하여 考古學과 美術史의 領域에서 거둔 적지 않은 成果는 모두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關係當局의 계속된 施策과 地方同好人士의 큰 勞苦에 대하여 敬意를 표하는 바이다.

(八三·一〇)

〈註〉

- ① 中原文化圈遺蹟分布圖 忠清北道 一九八一年刊。이 조사는 忠北大博物館이 담당하였다.
- ② 高裕燮氏는 그의 「韓國塔婆의 研究」(同和出版公社 一九七五年刊) 總論에서 이塔을 들고 있으나 各論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③ 三國史記 卷三十五 地理志 二에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置小京……景德王 改爲中原京 今忠州
- ④ 林炳泰·新羅小京考 「歷史學報」三五、三六合輯 一九六七年。
- ⑤ 張俊植·高句麗 國原城의 研究(檀國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⑥ 中原高句麗碑 「史學志」第十三輯 檀國大學校史學會 一九七九年十一月刊
- ⑦ 鄭永鎬·中原鳳凰里 磨崖半跏像과 佛菩薩群 「考古美術」一四六、一四七 合輯
- ⑧ 「韓國佛像三百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調查報告書 一九八二年刊
- ⑨ 黃壽永·益山地區의 새로운 注目(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十周年紀念 國際學術會議 一九八三年 十月)